

빛의 꽃 피운다...‘함평 겨울빛축제’ 준비 박차

‘함평의 밤, 빛의 향연’ 28일 개막...45일간 ‘빛의 테마파크’
이상의 군수 “새로운 겨울 명소...겨울철 야간관광 활성화”

함평군이 겨울을 한하게 밝힐 ‘2025 함평 겨울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2025 함평 겨울빛축제 최종 추진상황 보고회’를 최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상의 함평군수와 강하춘 부군수, 22개 실·과장, 9개 읍·면장, 함평축제관광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장의 야간경관 조명 연출과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 구성, 캐릭터 팝업스토어·푸드트럭·농특산물 판매장 등 부대시설 운영 계획, 읍 시가지 상권과의 연계 방안, 방문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까지 전반적인 추진 사항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2025 함평 겨울빛축제”는 ‘함평의 밤,

빛의 향연’을 주제로 오는 28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45일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화째를 맞는 겨울빛축제는 지난해 첫 개최에도 8만여명이 방문해 함평군이 나비대축제·국향대전 등을 통해 구축해온 축제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렸던 축제장을 활용해 이이남 작가의 대형 미디어아트 ‘빛으로 피어난 겨울, 함평의 인사’ 전시, 빛의 회전목마·미로정원, 천사 조형물 등 특색 있는 야간 경관조명 연출을 더해 빛과 예술이 결합된 ‘빛의 테마파크’를 선보

일 예정이다.

또 세상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버싱킹, 크리스마스 마칭밴드 공연, 눈꽃 화관·트리 만들기, 산타북 입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상의 군수는 “함평 겨울빛축제는 빛과 예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함평의 새로운 겨울 명소가 될 것이다”며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군이 겨울을 한하게 밝힐 ‘2025 함평 겨울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함평의 밤, 빛의 향연’ 모습.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 흑두루미에 대한 연구가 국내 최초로 국제 전문학술지에 등재됐다. 지난 20일 기준 올해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개체수가 기준 8180마리를 기록했다.

‘순천만 흑두루미 연구’ 국내 최초 국제학술지 등재

8180마리 월동 기록...과학 기반 보전 본격 추진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 흑두루미에 대한 연구가 국내 최초로 국제 전문학술지(SCIE)에 등재됐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흑두루미 도래 개체수가 8180마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연구는 흑두루미와 기러기류의 서식지 이용 패턴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순천시가 추진해 온 먹이 제공 정책과 서식지 관리가 두 종의 안정적 공존을 가능하

게 한 핵심 요인임을 규명했다.

해당 연구는 지난 12일 국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으며, 흑두루미 관련 연구가 국제 저널에 실린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올해 순천만 흑두루미는 탐조대 기준 100~150m까지 접근했으며, 최근에는 소규모 무리가 70m 거리까지 내려와 안정적으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희망농업단지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먹이활동을 이

어가고 있어, 순천만의 서식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흑두루미 위치추적 연구를 통해 이동 경로, 먹이활동 범위, 휴식 패턴 등 정밀한 생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축적된 자료는 향후 국제협력 확대와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에 참여한 이주현 전남대학교 박사는 “순천만은 그 자체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흑두루미 중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지닌 곳이다”며 “20여년간 순천만을 찾아온 흑

두루미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이번 사례는 국내외 철새보전 정책 수립에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 흑두루미 연구의 국제 학술지 등재와 사상 최대 월동 개체군 확인은 순천만 보전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성과다”며 “앞으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체계적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세계가 주목하는 철새보전 선도 도시로서 순천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화순군, 스타기업 지정·현판 수여식 개최

바이오프로디엔씨 등 3개사...글로벌 도약 지원

화순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바이오프로디엔씨 등 3개 기업을 ‘화순군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화순군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은 바이오프로디엔씨(대표 정대현), 수산가공식품 제작 업체인 ㈜정우에프앤비(대표 장영진), 위생용품 제작 업체인 ㈜하얀나라(대표 윤여호) 3개 회사다.

선정된 스타기업은 화순군에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시제품 제작, 디자인·마케팅, 정보화 지원 등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정기간은 2028년까지 3년이다.

화순군은 2021년부터 스타기업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개 사를 선정해 총 5억원의 지원을 통해 지역 유망기업 육성을 지속해 왔다. 기존에 선정된 스타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매출 10% 향상, 신규고용 5명 창출 등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고용안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24년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



화순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바이오프로디엔씨 등 3개 기업을 ‘화순군 스타기업’으로 선정하고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글리제는 ‘2024년 전남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에도 선정돼 고용환경개선자금, 자금유지한도 우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해당 사업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화순군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 화순군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첫 마을단위 ‘영광햇살나눔발전소 1호’ 준공

백수읍 지산3리...주민 직접 운영·수익 공유

영광군은 최근 백수읍 지산3리에서 첫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영광햇살나눔발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장세일 군수와 군의회 의원, 사공사(다스코㈜, ㈜신호엔지니어링), 마을협동조합 관계자,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역 에너지 자립의 첫걸음을 함께 축하했다.

‘영광햇살나눔발전소 1호’는 지산3리 주민들이 구성된 주민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발전소다.

마을 내 유휴부지에 총 사업비 약 9000만원을 투입해 군과 주민조합이 각각 50%씩 부담해 약 50kW 규모로 설치됐다.

발전소는 연간 약 65mWh의 전력 생산이 예상되며, 연평균 발전수익은 약 1100만원, 유지관리비·대출 상환 등

을 제외한 순수익은 연 320만원으로 전망된다.

15년 후 대출 상환이 종료되면 연간 800만원의 순수익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농번기 공동급식, 복지사업, 마을 운영자금 등 다양한 분야로 재투자될 계획이다.

장세일 군수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영광 첫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가 완성됐다”며 “이번 모델을 기반으로 더 많은 마을이 에너지 생산과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10개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gp98@

목포,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박차

지역특화산업 연계 창업 협력 생태계 구축 집중

목포시가 2025년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쉼터다락에서 지역특화산업 연계지원 등 창업 협력 생태계 구축·강화를 위해 서울 예비창업팀을 초청해 ‘2025년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Next Local)’ 참여팀이 목포의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들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현안을 탐색해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삼는 지역자원 연계형 창업 모델 발굴 프로젝트다.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실험·사업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이 공동협력 지원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이다.

목포를 찾은 예비창업팀 살루스(대표

방비홍)는 서울 청년이 직접 목포로 이주해 러닝·웰니스를 기반으로 한 청년 정주와 도시재생을 접목한 창업 아이템을 추진하고 있다.

살루스팀은 팀의 구성 과정, 창업 아이템 소개, 목포 방문 배정, 현재 준비 과정에서의 고민 등을 발표하며 목포의 산업·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들은 목포가 보유한 해양·수산·식품·문화관광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적용 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

조영실 목포시 청년인구과장은 “서울 청년들이 목포의 자원과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이들이 조기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협력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여수해수청, 남면 안도리 해상 암초에 등대 설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여수시 남면 안도리 증삼도 앞 해상 암초에 국비 7억 6000만원을 들여 항행안전시설인 등대를 설치했다.

해당 암초는 해도의 기본수준면보다 약 2m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간출암으로 만조 시에는 보이지 않아 조업 어선이 좌초된 경우가 있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조치가 절실했다. 이번에 설치된 등대의 구조는 직경 1.7m, 높이 12m의 원형 강관 구조물이며, 항해자는 주간에는

구조물의 형상·색상(흑황색)으로, 야간에는 12m 밖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는 등화를 통해 등대를 시인할 수 있다.

항행 위험지역인 암초에 등대가 설치됨에 따라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주간 및 야간에 암초 위치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 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항 선박 위험요소를 지속 발굴 및 해소해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